

서울 京畿地域의 退溪門人과 그 性格

황 위 주*

目 次

1. 머리말
2. 서울 京畿地域 門人の 現況
3. 서울 京畿地域 門人の 性格
4. 맺음말 : 後代的 繼承 問題

1. 머리말

河謙鎮은 우리 나라에 유학이 있어 온 이래로 經術과 德行을 겸비함이 퇴계 만한 이가 없고, 授受한 淵源의 성대함이 퇴계 만한 이가 없으며, 그 遺風과 教化가 영남뿐만 아니라 湖南 湖西 近畿 海西 지방까지 두루 미쳐, 陶山學案이야말로 우리 나라 상하 일천 년 간 유학의 大一統의 學案이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 유학 사상 퇴계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퇴계의 학문은 실재 이전부터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河謙鎮, 『東儒學案』, 上編三, 「陶山學案」; 自有吾東儒學以來 經術德行之備 無如退陶 自有吾東儒學以來 授受淵源之盛 無如退陶 蓋退陶之前 有若圃隱寒暄一臺晦齋靜庵諸先生作 皆以闡發斯文爲己任 其道駸駸既弘大矣 而退陶先生集而成焉 退陶之後 其遺風餘教 藹然被於嶺南兩湖畿甸海西之間 儒賢蔚起 幾於上軼齊魯之文化 雖其間或不無自立門戶 論議識見之有少異者 而所異者文義也 其大體則悉本於退陶 無異辭也 是以此陶山學案者 祇取其門第弟子及私淑而已矣 而其實非第爲陶山學案 乃吾東上下一千年儒學大一統之學案也

부분적으로 시도해 온 성리학의 이론 탐색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후의 허다한 이론 논쟁을 촉발시킨 바로 그 정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陶山學案이 곧 우리 나라 유학 大一統의 學案이란 지적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퇴계가 이룩한 학문적 업적과 그 영향력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있었던 만큼 퇴계학을 공부하고 계승하려는 사람도 전국에 두루 편재되어 있었다.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된 급문 제자의 거주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퇴계의 가장 주요한 활동 근거지였던 영남 지역, 특히 예안 안동 지역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울지역으로 분류된 인물도 46명이나 되고, 기타 경기도 파주·고양·광주·안산·양근·용인, 호남의 광주·장흥·창평·화순·순천, 충청도의 충주·아산·청주, 강원도의 강릉·원주 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지역에 제자군이 포진하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퇴계 당대에 이미 그 학문적 영향력이 전국적이었음을 단적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본고는 전국에 편재한 퇴계 문인 중 특히 서울 경기지역 문인의 실상과 그 성격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퇴계학의 계승 문제는 영남지역의 몇몇 嫡統 제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서울 경기지역과 관련해서는 鄭述-許穆-李灑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학파와의 학문적 연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퇴계가 예안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이 일대에 실재한 제자의 수가 단위 지역으로서는 예안(55) 안동(47) 등지에 못지 않게 많았으며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퇴계 문인의 실상과 성격이 아직 온전하게 검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한정하여 이 지역에서 활동한 급문 제자의 실상을 밝히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퇴계의 학통제자』, 『退溪學의 理解』, 일송미디어, 2001, 198쪽 참고.

2. 서울 京畿地域 門人の 現況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자료는 1922년 퇴계 종손 李忠鎬가 간행한 제 2차 개간본 『陶山及門諸賢錄』이다. 『도산급문제현록』은 1914년 기존의 四家本³⁾을 정리하고 여기에 다시 40여 명의 문인을 추가하여 續錄으로 편집 보완한 이른바 甲寅本 『도산급문제현록』 5권 2책(혹 4책)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屏山書院에 출입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 오류를 낱낱이 지적한 『陶山及門諸賢錄辨正』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1916년에 1차 개간, 1922년에 다시 2차 개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다⁴⁾. 따라서 제 2차 개간본 『도산급문제현록』은 아직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급문제현록』에는 제일 앞의 鄭之雲부터 제일 뒤의 李善道까지 약 310명의 급문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⁵⁾, 각 개별 인물에 대한 기술이

- 3)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처음으로 퇴계문인 약 100여명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溪門諸子錄』을 편찬하였고, 그 뒤 퇴계 6대손 靑壁 李守淵(1693-1748)이 여기에 문인 60여 명을 추가하여 『陶山及門諸賢錄』을 편찬하였으며, 곧 이어 山後 李守恒(1695-1768)이 다시 10여 명의 문인과 각종 왕복문자 輓, 祭, 書 등을 첨기한 『陶山及門諸賢錄』을 편찬하였고, 퇴계 9대손 廣瀨 李野淳(1755-1831)이 또 다수의 문인을 첨기하여 전체 약 260여 명으로 구성된 『陶山及門諸賢錄』을 편찬하였다. 이 4가지를 일반적으로 四家本 陶山及門諸賢錄이라 한다.
- 4) 1914년 갑인본 『陶山及門諸賢錄』이 간행된 뒤에 대한 辨正과 改刊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추측컨데 풍산에서 『陶山及門諸賢錄辨正』을 제시하자 1916년 陶山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여 1차 개간본을 간행하였고, 다시 풍산에서 『陶山及門諸賢錄改刊後追辨』을 간행하자 또 다시 陶山에서 그 내용을 수렴하여 1922년 2차 개간본을 간행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陶山及門諸賢錄』의 간행과 辨正 改刊 追辨에 대해서는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 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참고.
- 5)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된 문인 수는 1914년 발간된 판본에는 309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2년 제 2차 개간본에서는 310명으로 한 명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金弘度 詩(권2 제일 끝) 뒤에 附記되었던 金彦瑠를 따로 독립시켜 金弘

대부분 이름, 자, 호, 관향, 거주지, 출생, 수학 과정과 官歷, 급문사실, 관련 문건 등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이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한 인물들은 대략 居京 居漢陽이라 표기하였고,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은 居高陽(鄭之雲), 居坡平(成渾), 居廣州(宋言愼) 등처럼 구체적인 행정 단위를 적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명시해 놓은 인물을 헤아려 보면 일단 서울지역이 46명 경기도지역이 6명 전체 52명 정도로 파악된다.

鄭之雲(1;高陽) 李湛(2) 洪仁祐(7) 韓脩(8) 申沃(9) 韓胤明(10) 李咸亨(12) 許忠吉(13) 金德龍(21) 朴淳(29) 朴濟(40) 金德鵬(44) 金就礪(49;安山) 成渾(71;坡平) 李珥(72;坡州) 李應進(73) 尹根壽(74) 許曄(75) 金命元(77) 禹性傳(101) 宋言愼(102;廣州) 金孝元(103) 朴漸(104) 李敬中(108) 金悌甲(113) 金晬(115) 李養中(116) 趙振(117) 李國弼(122) 南彥紀(127) 沈喜壽(130) 柳根(136) 洪迪(138) 許箴(142) 金泰廷(146) 成洛(148) 金希禹(156) 李達(158) 呂世潤(160) 趙贊(164) 崔德秀(181) 金戣(184) 趙容(195;龍仁) 尹卓然(196) 金忠男(200) 崔聃齡(204) 李純仁(208) 曹大而(241) // 李陽元(279) 尹斗壽(284) 沈義謙(285) 尹噉(293)

그러나 거주지를 서울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재 서울에 근거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몇 사람 더 있다. 李誠中(83)·許筭(143)·洪仁祉(173)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이다. 李誠中은 동생 李敬中(108)과 李養中(116)이 모두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찌기 서울 집에서 선생을 배알하고 의심되는 점을 질문하였다”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입문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 허봉 역시 아버지 許曄

度 자리(권4 중간)로 편입시키고, 김홍도를 권2 끝으로 옮겨놓는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金彦瑒가 독립되어 1명이 추가된 셈이다. 현재 2차 개간본에는 金弘도가 76번째 金彦瑒가 216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6) 『陶山及門諸賢錄』, 권3, 「李誠中」; 嘗拜先生于京邸 質問疑義

(75)과 친형 許箴(142)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眉菴 柳希春이 서울에 있을 때 허봉이 보내준 『感興詩』1책, 『略韻』1책 작은 책상 1개 등을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⁷⁾ 서울에 거주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 洪仁祉도 친형 洪仁祐(7)와 조카 洪適이 모두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의 入門 사실을 “선생이 서울에 머물 때 여러 차례 질문한 적이 있다”⁸⁾라고 밝혀 놓은 것을 보면 서울에 거주한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세 사람 외에도 辨正錄을 통해 조정해야 할 인물이 몇 사람 더 있다. 具思孟(45)·金弘度(76)·李光軒(170)·李大潤(227)·柳淇(234)·任爾臣(275)·洪聖民(290)·兪大脩(296)·徐崦(298)·朴大立(300) 등 10명은 변증록에 분명하게 居京이라 명시하고 있어서 서울 지역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급문록에서 서울 인물로 기록한 金德龍(21)·金德鵬(44) 형제는 모두 경기도 抱川이라 변증하였고, 朴淳(29)은 충청도 懷德에, 李達(158)은 강원도 橫城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 놓았다. 따라서 앞의 두 사람은 경기도로 조정하고, 뒤의 두 사람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제외해야 마땅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徐嶸(78)와 南弼文(154)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지만 각각 안동과 밀양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洪渾(31)은 원래 충청도 唐城 사람이었으나 경기도 陽根 時雨洞에 은거하며 살았기 때문에⁹⁾ 경기도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한 결과를 종합할 때, 퇴계 문인 310명 중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서울 55명, 경기 9명, 전체 약 64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들의 인적 사항과 급문 사실을 간단히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眉菴日記』, 1568년 9월 12일, 景濂還自許筠所 感興詩一冊 略韻一冊 小書案一介 皆筠所贈也

8) 『陶山及門諸賢錄』, 권4, 「洪仁祉」; 先生留京時 累有質問

9) 유성룡이 「時雨散人」(『西崖集』別集, 卷4, 雜著)에서는 “洪渾 字渾元 唐城人 與余登丙寅科”라 하였고, 『급문록』에는 “爲人 任直放浪 不俯仰時俗 中年 不樂仕宦 棄官隱於陽根時兩洞 自號時兩散人”이라 하였다.

《표1》 서울 경기지역 문인의 현황

순서	성명	생몰연대	거주지	금문관계기록
002	李 湛	1510-1574	居京	登第 與先生同入玉堂 質疑於先生 少先生九歲而退然以後學自居.
007	洪仁祐	1515-1554	居京	中司馬 晚拜先生於京邸 面論書質 一味尊信
008	韓 脩	1514-1588	居京	遊先生門 中司馬 明廟丁卯 以經明行修被薦
009	申 沃	1534-1619	居京	금문 기록 없고 편지2통 있음
010	韓胤明	? -1567	居京	遊先生門 嘗與金伯獻 入清涼山 讀啓蒙 先生以詩贈之
012	李咸亨	불분명	居京	寓居順天來遊門下. 漢陽書生李咸亨見留隴雲
013	許忠吉	1516- ?	居京	登文科 遊門下. 拜榮川郡守時 先生已易簣 公首先奉安位版於伊山書院又以嘯臯朴公所印送聖學十圖刊于院中
040	朴 濟	불분명	居京	侍先生纔十許日 遭先生喪
045	具思孟	1531-1604	居京	嘗作四峪羽翼太子論質於先生. 다른 금문 기록 없음.
073	李應進	1536-1592	居京	少遊先生門 篤志好學 不求聞達
074	尹根壽	1537-1616	居京	受業先生 嘗以心經質問 戊午中文科 封海平君
075	許 曄	1517-1580	居京	先生有往復書. 금문 기록 없음
076	金弘度	1527-1561	居京	金眸之父. 금문 기록 없음. 원례 215항
077	金命元	1534-1602	居漢陽	少登先生門 讀易于隴雲精舍 頗詳敏 先生嘉之
083	李誠中	1539-1593	京	負芘于李履素金惕菴門 從事義理之學 嘗拜先生于京邸 質問疑義
101	禹性傳	1542-1593	居京	受業於先生 論難義理 尤用力於易象及禮學
103	金孝元	1542-1590	居京	早遊先生門 與西厓鶴峰東岡樂圃德溪諸君子 結道義交
104	朴 漸	1532-1592	居京	遊先生門 登第 官至參議
108	李敬中	1542-1585	居京	與弟養中 俱遊門下 爲吏郎 贈判書
113	金悌甲	1525-1592	居京	癸卯來謁先生 遂師事之 癸丑登第
115	金 眸	1547-1625	居京	早從先生於陶山 登第 官判中樞
116	李養中	1549-1591	居京	從先生遊 登第歷駁清顯 官至承旨
117	趙 振	1543-1625	居京	從先生於陶山 與良齋諸賢 留隴雲精舍 質心經

近思錄等書

- | | | | | |
|-----|-----|-----------|-----|-----------------------------|
| 122 | 李國弼 | 1540-? | 居京 | 遊門下 先生嘗以其凡事必欲異衆效古爲病 |
| 127 | 南彦紀 | 불분명 | 居京 | 遊先生門 先生爲書箴銘以與之 官別坐 |
| 130 | 沈喜壽 | 1548-1622 | 居京 | 遊先生門 壬申登第 |
| 136 | 柳 根 | 1549-1627 | 居京 | 卯角遊先生門 講問經傳疑義 二十四擢文科壯元 |
| 138 | 洪 迪 | 1549-1591 | 居京 | 二十二謁先生於陶山 問爲學之要 登第選湖堂 |
| 142 | 許 箴 | 1548-1612 | 居京 | 祭文에 “昔余小生 曾獲摳衣 聞風興起 況觀其德” |
| 143 | 許 筠 | 1551-1588 | 京 | 聰穎絕倫 十歲詩文已成 早遊先生門 弱冠登第 |
| 146 | 金泰廷 | 1541-1588 | 居京 | 遊門下 有喪禮問答 登第 官至觀察使 |
| 148 | 成 洛 | 1542-1588 | 居京 | 遊先生門 登第 選入玉堂 |
| 156 | 金希禹 | 1519-1583 | 居京 | 中司馬 遊先生門 |
| 160 | 呂世潤 | 1520-? | 居京 | 中司馬 有獻先生詩數十首. 다른 급문 기록 없음 |
| 164 | 趙 贊 | 1536- ? | 居京 | 嘗留隴雲讀易 又質居廡祭祀之禮 |
| 170 | 李光軒 | 1531- ? | 居京 | 급문 기록 없고 輓詩1수만 수록 |
| 173 | 洪仁祉 | 1522- ? | 京 | 恥齋弟. 先生留京時累有質問 |
| 181 | 崔德秀 | 불분명 | 居京 | 官縣監 遊門下 |
| 184 | 金 弼 | 1531-1584 | 居京 | 先生題跋以贈 先生有往復書. 다른 급문 기록 없음 |
| 196 | 尹卓然 | 1538-1594 | 居京 | 公挽先生詩. 다른 급문 기록 없음 |
| 200 | 金忠男 | 1530-1618 | 居京 | 급문 기록이 전혀 없음 |
| 204 | 崔聘齡 | 불분명 | 居京 | 與同門諸賢 論先生禮葬時儀節. 다른 급문 기록 없음 |
| 208 | 李純仁 | 1533-1592 | 居漢陽 | 壬申文科 以詩鳴 早知爲學之方 遊先生門 |
| 227 | 李大潤 | 1533-1596 | 居京 | 受業于先生(辨正) |
| 234 | 柳 淇 | 불분명 | 居京 | 급문 기록이 전혀 없음 |
| 241 | 曹希章 | 불분명 | 居京 | 來寓龍壽寺 受業門下. 이름은 辨正錄에 근거 |
| 275 | 任肅臣 | 1512-1588 | 居京 | 급문 기록 없고 輓詩 일부만 수록 |
| 279 | 李陽元 | 1526-1592 | 居京 | 登先生門 深見期허 與寒岡 道義相切磋 |
| 284 | 尹斗壽 | 1533-1601 | 居京 | 丁卯(1567)謁先生于京第 多有質問 |
| 285 | 沈義謙 | 1535-1587 | 居京 | 급문 기록 없고 書 詩 輓詩 각1편씩 수록 |
| 290 | 洪聖民 | 1536-1594 | 居京 | 급문 기록 없고 輓詩1편 수록 |
| 293 | 尹 暉 | 1551-1612 | 居京 | 出入先生門 篤志力學 |
| 296 | 俞大脩 | 1546-1586 | 居京 | 급문 기록 없고 祭文 일부 수록 |

- 298 徐 峴 1565-1609 居京 급문 기록 없고 祭文 일부 수록
 300 朴大立 1512-1584 居京 급문 기록 없고 祭文 일부 수록
 001 鄭之雲 1509-1561 居高陽 先生寓居京中 與公同坊 公嘗作天命圖又著說
 先生改訂
 021 金德龍 1518- ? 抱川 遊先生門 登第 官至大司憲
 031 洪 渾 1541-1593 陽根 급문 기록 전혀 없음
 044 金德鵬 1525-1567 抱川 遊先生門 嘗反復論武夷樓歌 登第 卒年四十三
 049 金就礪 1526- ? 居安山 登先生門 千里負芘 不以往來爲勞 面稟書質一
 味篤信
 071 成 渾 1535-1598 居坡平 丁卯先生入洛 公就拜 平生尊慕先生
 072 李 珥 1536-1584 居坡州 二十三歲謁先生于陶山 問主一應事之要 撰先
 生遺事
 102 宋言慎 1542-1612 居廣州 師事先生 丁卯中司馬 丁丑登第
 195 趙 容 1518- ? 居龍仁 靜菴文正公子. 급문 기록 없음

위의 <표1>에서 짚게 표기한 14명은 당초 『도산급문제현록』에 거주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명시되었던 것을 변경록 등을 통해 새롭게 밝혀서 추가한 인물들이고, 밑줄 친 2명은 당초 서울로 명시되었던 것을 변경록에 근거하여 경기도로 조정한 인물들이다. 이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활동한 문인 55명, 경기도에서 활동한 인물 9명, 전체 약 64명 정도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급문록에 등재된 전체 문인 310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269명의 약 24%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로서, 퇴계의 핵심적 근거지였던 경상북도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즉 전라(13명), 경남(11명), 충청(4명), 강원(3명) 등¹⁰⁾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문인의 수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경상북도 다음으로 퇴계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10) 이것은 김중석의 『退溪學의 理解』, 일송미디어, 2001, 198쪽에 제시된 <표2 ; 거주지별 문인 수>를 근거로 통계를 낸 것이며, 대체적인 상황만 확인하면 무방하겠기에 필자가 새롭게 조사해서 밝힌 사실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이 퇴계 문하에 입문한 방식은 대략 2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퇴계가 서울에 머물고 있을 때 서울에서 찾아뵙고 수학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산으로 직접 찾아와 머물면서 수학한 것이다. 『도산금문제현록』에 “선생이 서울에 寓居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에 살았다” “선생과 함께 玉堂에 들어가 선생에게 질의하였다” “선생을 서울 집으로 찾아뵙고 만나서 토론하고 편지로 질의하였다” “선생이 서울에 머물 때 여러 번 질문이 있었다”라는 요지로 기록한 鄭之雲·李湛·洪仁祐·李誠中·尹斗壽·洪仁祉·成渾 등 7명¹¹⁾ 서울에서 입문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량산에 들어가 啓蒙을 읽었다”, “隴雲精舍에 머물면서 공부하였다”, “천리 먼 길에 책상자를 지고 왕래하기를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고 만나서 말씀드리고 편지로 질문하였다”, “도산으로 선생을 찾아 뵙고 질문하였다”, “龍壽寺에 와 살면서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라는 요지로 기록한 韓胤明·李咸亨·金命元·趙振·趙贊·金就礪·李珥·金粹·洪迪·曹希章·朴濟 등 11명¹²⁾ 도산으로 직접 찾아와서 공부한 것이 확실하다. 여타 인물들의 입문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이 두 유형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양자의 절충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문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 경기지역 문인 중에는 서울에서 입문한 사람 보다 도산으로 직접 찾아와서 수학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

11) 『금문록』에 “先生寓居京中 與公同坊”(鄭之雲;1), “與先生同入玉堂 質疑於先生”(李湛;2), “拜先生于京邸 面論書質”(洪仁祐;7), “拜先生于京邸 質問疑義”(李誠中;83), “先生留京時 累有質問”(洪仁祉;173), “謁先生于京第 多有質問”(尹斗壽;284), “先生入洛 公就拜”(成渾;71)라고 한 기록이 있다.

12) 『금문록』에 “入清涼山 讀啓蒙”(韓胤明;10), “漢陽書生李咸亨 見留隴雲”(李咸亨;12), “侍先生 纔十許日 遭先生喪”(朴濟;40), “千里負芘 不以往來爲勞 面稟書質”(金就礪;49), “謁先生于陶山 問主一應事之要”(李珥;72), “少登先生門 讀易于隴雲精舍”(金命元;77), “早從先生於陶山”(金粹;115), “從先生於陶山 與良齋諸賢 留隴雲精舍 質心經近思錄等書”(趙振;117), “謁先生於陶山 問爲學之要”(洪迪;138), “嘗留隴雲 讀易又質居廬祭祀之禮”(趙贊;164), “來寓龍壽寺 受業門下”(曹希章;241)라고 한 기록이 있다.

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퇴계가 서울에서 생활한 기간이 근본적으로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짧은 서울 체류 기간이 아직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기 이전인 청장년 시절에 편중되었던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표2》 퇴계의 서울 체류 상황

연도	체류기간	관련 사실
1522년	잠시	始遊太學館 未幾還鄉. 與金麟厚相從
1532년	잠시	文科初試에 응시. 2등 합격 후 還鄉
1533년	반년	遊泮宮 秋下鄉 道經驪州 見慕齋先生
1534년	반년	3월及第 任官. 7월乞假下鄉省親 10월還朝任官
1535년	반년	6월 差護送官送倭奴于東來 是行取道鄉邑 省大夫人
1536년	10달	7월乞假省親. 9월 拜戶曹佐郎
1537년	9달	10월丁母夫人朴氏憂. 1539년12월服闋
1540년	1년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刑曹正郎 弘文館校理
1541년	9달	5월 拜弘文館修撰. 以咨文點馬赴義州 承催旨還朝. 10월兼世子侍講院文學
1542년	반년	2월拜弘文館副校理. 仍差御史 下忠淸道 檢察郡邑救荒能否. 4월復命 8월 이후 差災傷御史 往江原道. 12월拜司憲府掌令
1543년	10달	10월拜成均館司成. 乞假還鄉省墓. 11월除禮賓寺副正不赴
1544년	10달	2월以弘文館校理召還. 9월乞假. 10월還朝
1545년	1년	4월拜軍資監僉正. 9월拜弘文館典翰
1546년	1달	2월乞假還鄉葬外舅權公頤. 5월病未還朝解職. 이후 皆不赴 築養眞菴于退溪之東巖
1547년	4달	8월被召還朝
1552년	8달	4월被召還朝 司憲府執義 弘文館副應教 成均館大司成
1553년	1년	4월拜大司成 通文四學 諭諸生. 10월改訂鄭之雲天命圖
1554년	1년	5월拜刑曹參議. 7월哭周愼齋與盧伊齋. 11월哭洪上舍仁祐
1555년	1달	2월書進康寧殿七月篇 以病三辭解職 卽出城買舟東歸
1558년	반년	閏七月上疏乞致仕 御批不允 赴召入都 10월拜成均館大司成. 12월再辭三辭皆不允
1559년	1달	2월乞假歸鄉 病未還朝 上狀辭職

1567년	2달	6月赴召入都 8月以病免 卽東歸. 10月在龍壽寺. 누차 有旨가 있었으나 皆不赴
1568년	반년	7月入都赴召 弘文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上疏陳六條 12月上聖學十圖
1569년	2달	3월乞退許之 辛酉至家

위의 《표2》는 西厓本, 『退溪先生年譜』¹³⁾를 기초로 퇴계가 서울에 체류한 기간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퇴계가 70평생에서 서울에 머문 기간은 겨우 1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퇴계는 33세 때 처음으로 반년 정도 성균관에 머문 적이 있고, 34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한 이래 45세까지 서울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도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에 내려와 있던 2년 2개월(37세 10월-39세 12월)과 御史로 지방에 파견되었던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울에 체류한 기간은 7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6세 2월에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 온 퇴계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에 침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후로는 수많은 관직 임명과 나라의 부름이 있었지만 거의 出仕하지 않았으며,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울에서 벼슬한 것은 52세부터 55세 사이 약 2년 9개월, 58세 7월부터 59세 1월까지 약 7개월, 67세 때 약 2개월, 68세 7월부터 69세 3월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니까 12년 남짓한 서울 생활 중 7년 반 이상이 청장년 시절이었고, 본격적으로 학문에 침잠하여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46세 이후에는 겨우 4년여 정도를 서울에서 생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퇴계는 서울에서 생활한 기간이 근본적으로 길지 않았고, 그 기간이 아직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기 이전인 청장년 시절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생활 근거가 서울 경기지역인 사람들도 서울에서 보다 도산으로 찾아와서 수업한 경우가 더 많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계가 짧은 서울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서울 경기지역

13) 金光淳, 『註解 退溪先生年譜』,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2, 301-382쪽.

제자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의 높은 명망과 학문적 성취 때문이겠지만, 46세 이후 퇴계가 맡은 주요 관직이 주로 중앙의 文翰 敎育職이었던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듯하다. 퇴계는 48세 때 단양군수로 약 8개월, 풍기군수로 약 2개월을 지낸 이외에는 대부분 문한 교육직에 임명되었다. 52세 4월 소환될 때 관직은 弘文館校理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承文院校理였고, 7월에는 유일한 국립대학인 成均館大司成에 취임하였다. 이듬해 4월 재차 成均館大司成에 취임했을 때는 四學에 통문을 돌려 “국가가 학교를 세워 선비를 양성함은 그 뜻이 매우 크니 스승과 제자가 제각각 예의와 본분을 다하여 나라에서 학교를 세워 선비를 양성하는 그 뜻에 부응토록 하라”¹⁴⁾는 요지의 諭示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58세 때 다시 조정에 소환되어 약 6개월 정도 체류하였을 때도 그 직책이 成均館大司成이었고, 68세 7월 마지막으로 서울에 불러 올라갔을 때도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였던 것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맡은 주요 직책이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홍문관 예문관 같은 문한직 특히 성균관대사성이란 교육직이었기 때문에 짧은 서울 생활에도 불구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제자를 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울 京畿地域 門人의 性格

1) 기호사림의 학통을 계승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다.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이 대부분 여러 차례의 사화를 거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이

14) 西厓本, 『退溪先生年譜』, 三十二年癸丑, 先生五十三歲; 學校 風化之源 首善之地 士子 禮義之宗 元氣之寓也 國家設學以養士 其意甚隆 師生之間 尤當以禮義相先 師殷生敬 各盡其道 自今諸生 凡日用飲食 無不周旋於禮義之中 惟務更相勸勵 灑灑 舊習 推入事父兄之心 爲出事長上之禮 內主忠臣 外行遜悌 以副國家右文興化設學 養士之意

일대 사람과 지식인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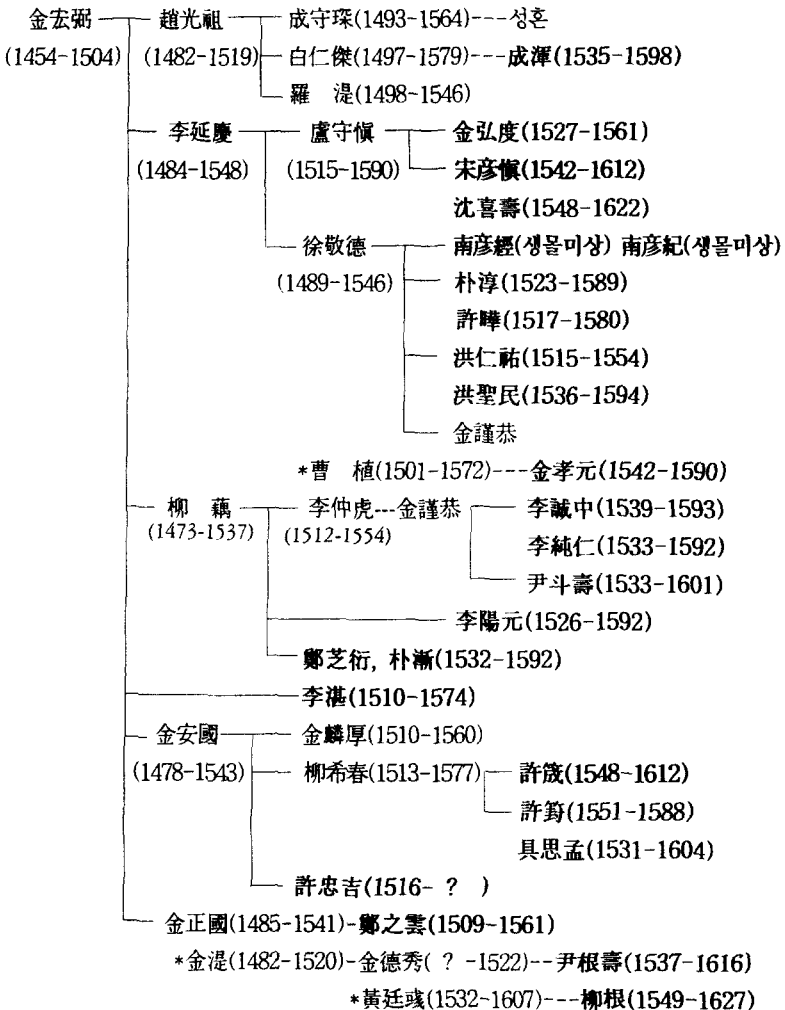
퇴계 이전에 수도권 일대에서 제자를 양성한 사람과 선배로는 柳藕·金安國·趙光祖·金湜·李延慶·金正國·徐敬德 같은 사람이 있었다.¹⁵⁾ 유우(1473-1537)는 스승 김광필(1454-1504)이 갑자사화로 처형되자 벼슬을 단념하고 서울에서 강학을 하면서 지냈고, 김안국(1478-1543)은 사헌부대사헌·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지만, 기묘사화 때 겨우 처형을 면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후진을 가르치면서 생활하였다. 조광조(1482-1519)는 기묘사화 때 金詮 南袞 등의 탄핵을 받아 처형되었고, 김식(1482-1520)은 경상도 거창으로 숨어들었다가 자결하였다. 이연경(1484-1552)은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공주로 내려가 제자를 가르치며 생활하였고, 이연경 연원으로 알려진 서경덕(1489-1546)은 조광조 등에 의해 현량과에 추천을 받았지만 끝내 응하지 않고 경기도 개성 花潭에서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이처럼 퇴계 이전에 서울 일대에서 활동한 사람과 선배들은 몇 차례 사화를 거치면서 처형되거나 재야에서 학문에 몰두하였는데, 퇴계가 중앙 학계에 그 학덕과 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50세 전후에는 이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학통을 계승한 그 다음 세대 학자 즉 유우의 문인 李仲虎, 김안국의 문인 柳希春, 조광조의 문인 成守琛과 白仁傑, 김식의 문인 金德秀, 이연경의 문인 盧守愼 등이 활동하였는데, 이들 역시 곧 이어 일어난 을사사화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유희춘(1513-1577)은 함경도 종성에서 19년 간 유배생활을 하였고, 백인걸(1497-1579)은 파직되었다가 다시 안변에 유배되었으며, 노수신(1515-1590)은 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진도에서 19년 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런 재앙을 피하여 온전히 강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람은 기묘사화 이후 은거 생활을 계속해 온 성수침 이중호 김덕수 정도였는데, 김덕수(?-1522)는 일찍

15) 이것은 퇴계 이전에 이 일대에 거주했던 인물 중 『典故大方』, 明文堂, 1982, 248쪽 《門人錄》 조항에 구체적으로 양성한 문인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적시한 것이다.

세상을 떠났고, 이중호(1512-1554)도 곧 세상을 떠날 그런 처지였다. 그래서 마땅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서울 경기지역 일대의 사람과 학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퇴계 문하로 대거 입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표3》 서울 경기지역의 학맥과 퇴계문인



위의 표3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강학 활동을 해왔던 선배 학자들의 본래 학통과 서울 경기지역 퇴계문인과의 학맥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가 여러 문인록을 두루 참고해서 작성해 본 것인데, 질게 표기한 사람은 모두 서울 경기지역의 퇴계 문인들이다.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 64명 중 이처럼 퇴계에게 입문하기 이전에 다른 스승에게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22명 정도로 파악된다¹⁶⁾. 그런데 이 중 南冥에게 수학한 金孝元(103)과 奇大升에게 수학한 尹暉(293)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위의 서울 경기지역 사람과 선배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해 온 학통의 큰 흐름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혼은 조광조-백인걸 계열이었고, 노수신·김홍도·송언신·심희수는 이연경 계열이었으며, 남언기·허엽·홍인우·홍성민 등은 서경덕 계열이었다. 이성중·이순인·윤두수·이양원·박점 등은 유우-이중호 계열이었고, 유희춘·정지운·허성·허봉·구사맹·허충길 등은 김안국-김정국 계열이었으며, 윤근수는 김식-김덕수 계열이었다. 이처럼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들은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마땅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이 일대 사람과 지식인 혹은 그 후예들이었다는 점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다.

2) 퇴계와의 親緣性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의 또 다른 한 특징은 이들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퇴계와의 학문적 상관성 혹은 親緣性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선 이 지역 문인들 중 상당수가 초기 문인록에 등재되지 않았다가 후대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에서 일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퇴계의 문인록은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퇴계 사후 약 150여 년

16) 앞의 표1에 제시한 급문관계 기록 참고.

만에 급문제자 약 100여명 가량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퇴계 6대손 靑壁 李守淵(1693-1748)이 창설재본의 한계, 즉 거리가 멀어서 잘 알지 못했거나 세상에 드러난 인물이 아니어서 미처 고증하지 못한 문인 약 60여 명을 추가해서 2차로 편찬하였다. 이 두 본은 퇴계 문인 전체를 두루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경향 각지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중요 문인들은 대부분 포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후대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빼버린 다른 여러 급문록의 오류를 바로잡고 특정인의 문인으로서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¹⁷⁾ 『도산급문제현록변증』에서 이 두 본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靑壁二錄并不載”, 즉 “蒼雪齋와 靑壁 두 본에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라고 낱낱이 밝혀 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¹⁸⁾ 그런데 서울 경기지역 문인 64명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21명이 모두 이 두 본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⁹⁾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 중 1/3은 처음 두 차례 문인록을 편찬할 당시까지 아예 등재 자체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나 학문적 상관성이 미약했다는 뜻이다.

급문 관계가 명백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64명 가운데 19명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 할 만하다. 『도산급문제현록』에

-
- 17) 『辨正錄』, 凡例 ; 竊惟此本所稱引四家錄者 其爲哀輯記載之例 雖有詳略之不同 然既曰謹依原例 而今此許多去取 洵非四家之舊錄矣 尙可謂之依例編印耶 且就四家錄中 尙論其世 則靑壁二本 稍爲近古 而所錄不涉於煩冗 噫 卽此而先輩難慎之意 居可知矣
- 18) 이 두 본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을 낱낱이 밝혀 기록해 놓은 것은 물론 그들이 후대에 추가된 인물임을 객관적으로 밝혀 두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정지운 유희춘 등 몇몇 사람들의 급문 여부를 시비하면서 蒼雪齋와 靑壁 두 본에 이름이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차적 근거로 제시했던 것을 보면 특정인의 문인으로서의 중요성이나 及門의 진실성 與否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 19) 洪潭(31), 具思孟(45), 趙容(195), 尹卓然(196), 金忠男(200), 崔聃齡(204), 李純仁(208), 李大潤(227), 柳淇(234), 曹希章(241), 任雍臣(275), 李陽元(279), 尹斗壽(284), 沈義謙(285), 洪聖民(290), 尹墩(293), 俞大脩(296), 徐崑(298), 朴大立(300) 등이다. 권4 중반, 趙容(195) 이후에 수록된 서울 경기지역 인물은 모두 해당한다.

는 특정인의 급문 사실을 遊門·登門·受業·從學·師事 같은 직접적 표현이나 質疑 書質 謁從 拜問 같은 간접적 표현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 중에는 이런 기록 자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이 19명이나 된다.²⁰⁾ 예컨데 기록 내용이 비교적 많은 洪渾(31)의 경우 자 호 관향 성격 벼슬 행적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급문과 관계되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趙容(193)·尹卓然(194)·柳淇(234) 등은 모두 자·호와 관향 혹은 그 중 일부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물론 급문록의 기록 내용이 이렇다 해서 문인으로서의 진실성 여부를 가볍게 시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퇴계와의 학문적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물들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 가운데 문인 시비가 야기된 사람이 특히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퇴계에게 입문하기 이전에 다른 스승에게서 공부한 사람이 22명이나 되고, 초기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후대에 추가된 사람이 1/3에 이른다는 데서 일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변증록이나 여타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문인 시비가 정식으로 제기된 예를 실제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지운(1)의 예를 들어보자.

공의 성명은 창설재의 급문제자록에 들어있지 않다가 諸家の 기록에 처음 나타나서 이미 의아한 점이 없지 않고, 퇴계선생 문집을 참고해 보아도 분명히 급문한 實跡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또한 어떻게 절충해 낸 것인가? 일찍이 息山 李萬敷公이 편찬한 『道東編』과 『陶山手帖跋』을 보니 공을 언급하면서 한 곳에서는 朋友의 반열에 있었다고 하였고 한 곳에서는 思齋 金正國의 문인이라 하였다. 또 思齋의 喪에 공이 心喪 3년을 행하였다

20) 鄭之雲(1), 申沃(9), 洪渾(31), 成渾(71), 許曠(75), 金弘度(76), 呂世潤(160), 李光軒(170), 趙容(195), 尹卓然(196), 金忠男(200), 崔聃齡(204), 柳淇(234), 任爾臣(275), 沈謙謙(285), 洪聖民(290), 徐崦(298), 朴大立(300) 등이 그런 사람이다.

는 것이 諸家の 기록에 두루 나오니, 이것이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이미 결정하지 못할 의혹이 있는 데다가 또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있다면 문인록 등재 여부도 또한 살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²¹⁾

이것은 秋巒 鄭之雲의 문인록 등재 여부를 정식으로 문제삼은 것인데, 퇴계와의 나이 차이(8세 연하)와 李萬敷의 기록 등을 참고해 보면 金正國 문인으로 변정한 이 글의 견해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柳希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변증록에서는 그를 慕齋 金安國의 문인으로 단정하고, 그를 문인록에 등재한 잘못을 다음과 같이 공박하였다.

공의 성명은 창설재와 청벽본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그리고 퇴계선생의 문집을 참고해 보아도 또한 及門한 실재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만히 생각컨데, 공은 經術과 文章으로 조정에 곤은 절의를 드높이고 후학들에게 잃었던 正道를 가르쳐 주어 한 시대의 우뚝한 큰선비가 되었다. 따라서 만일 陶山의 제자였다면 公의·私의으로 마땅히 여러 번 편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지는 淵源을 밝혀주는 것이거늘 한 마디도 증거 할 것이 없는데, 이제 삼 백년 뒤에 오직 아름답게 꾸며 편찬하기를 의도하였구나. 스승이다. 제자다 하는 것은 그 나침이 분명하여 후대 사람이 감히 억지로 정할 것이 아니거늘, 이 책을 편찬한 이들이 함부로 섞어 넣었다.²²⁾

유희춘(1513-1577)은 원래 전라도 해남 출신으로 서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관직에 진출하면서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고, 서울 지역 문인인

21)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1, 「鄭之雲」; 且公之姓諱 不概於蒼雪錄 始見於諸家本 已不無誣惑 而參考老先生集中 亦未有端的可據爲及門之實蹟者 是將惡乎取衷歟 嘗觀息山李公萬敷所撰水道東編及陶山手帖跋 稱說公處 一則曰在朋友之列 一則曰金思齋門人 且思齋之喪 公爲之心喪三年 雜出於諸家記述 此獨非徵信之明驗乎 既有不決之惑 又有可信之證 則入錄與否 亦在所審慎也

22)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1, 「柳希春」; 公之姓諱 雪壁二錄并不載 而參攷老先生本集 亦未見及門之實蹟 竊念 公以經術文章 抗直節於清朝 指迷塗於來學 蔚然爲一代宏儒 如果是陶山之徒弟也 公私記述 當有屢書不一 書者 于以明淵源之所自 而顧無一言可徵 今於三百年後 惟意糺撰 夫曰師曰弟 其分截然 有非後人之敢加鞫定 而纂輯此本者 輒用攙錄

구사맹·허성·허봉 등이 그의 문하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이었는데, 변증록에서는 위와 같이 그를 근거 없이 함부로 급문록에 등재시켰다고 맹렬하게 공박하였던 것이다.

기타 洪仁祐(7)에 대해서는 韓百謙이 지은 행장에 道義交라고 했던 말에 근거하여 급문한 사람이 아닌 듯하다고 하였고²³⁾, 許忠吉(13)에 대해서는 許氏譜에서 “金安國에게 受業하였다”라고 한 기록을 끌어와 급문 사실을 시비하였다.²⁴⁾ 具思孟(45)은 眉巖 柳希春 문인이라고 명시하였고,²⁵⁾ 許曄(75)은 서경덕의 문인으로서 퇴계 당시의 及門者가 아니라고 하였으며,²⁶⁾ 南彦紀(127)도 서경덕 문인이라고 단정하였다.²⁷⁾ 沈喜壽(130)는 신도비를 인용해서 盧守愼 문인이라 하였고,²⁸⁾ 許箴(142)은 金世濂이 지은 묘갈명을 인용하여 유희춘 문인이라 하였다.²⁹⁾ 成渾(71)과 李珥(72)는 “퇴계를 지극히 존경하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직계 제자를 자처하지는 않은 사람”³⁰⁾이라 하였는데, 실재 李廷龜가 지은 성혼의 행장에는 白仁傑 문하에서 배웠다고만 했을 뿐³¹⁾ 퇴계에게 급문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

- 23)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1, 「洪仁祐」; 久菴韓公百謙 撰荷衣公行狀 有曰 公往嶺南 謁退陶蘇齋兩先生而講學 兩先生 耻齋公道義交也 觀於道義交之語 則似非及門之賢
- 24)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1, 「許忠吉」; 許氏譜曰 公受業於慕齋金先生---慕齋臨終 授以心經附註---許氏譜 其族姓李公 錄其師友 有非後人傳聞之比 而此本書以及門 又以登文科書之 抑何所攷据耶
- 25)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2, 「具思孟」; 謹按 公贈嶺相淳子 居京 生嘉靖辛卯 眉巖門人
- 26)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2, 「許曄」; 蓋公 以高才淹識 蚤歲從遊於花潭履素二公門 學殖日富 --- 雖非當日之及門 苟爲援入於是錄 何不一例記載
- 27)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3, 「南彦紀」; 謹按 公一字季憲 又號竹林 東岡彦經弟 花潭徐文康公門人
- 28)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3, 「沈喜壽」; 謹按---公神道碑銘曰 幼襲贊成公之訓 長遊蘇齋之門
- 29) 『陶山及門諸賢錄辨訂』, 권4, 「許箴」; 東溪金文康公世濂 撰墓碣銘曰少師柳眉巖 而得家庭之訓最多
- 30) 李佑成, 「韓國 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91쪽.
- 31) 『牛溪集』(『韓國文集叢刊』43), 《行狀》, 285쪽; 十七發解司馬兩試 而仍有疾 不赴覆試 自此絕意科業 專精學問 白獻納仁傑 以言獲罪 居坡庄 先生請業焉

있고, 金長生이 지은 율곡의 행장에도 율곡의 학문은 自得한 것이라고 하면서 퇴계와 토론한 사실만 적시했을 뿐 受學한 행적을 명시하지 않았다.³²⁾ 이 외에 金弘度(76)·許筓(143)·李陽元(279)·尹斗壽(284)³³⁾ 등 64명 중 14명이 이런 문인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은 수적으로는 예안·안동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실제 그 실상에 있어서는 초기 문인 록에는 기재도 되지 않은 사람과 문인 여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은 사람이 각각 1/3씩이나 되고, 비교적 널리 알려진 정지운·허엽·성혼·이이·허봉·이양원·윤두수 등이 모두 문인 시비에 휘말리는 등 퇴계와의 학문적 친연성은 그 수에 비해 상당히 미약했던 것이 분명하다.

3) 학자보다 관료문인적 성향이 농후하다.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은 퇴계의 학문적 논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학자형 보다 벼슬에 진출해서 일생을 관료로 일관한 관료 문인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 점은 우선 이 지역 문인들 가운데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 침잠하였다고 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산급문제현록』에는 특정인이 科擧를 포기하고 학문

32) 『栗谷全書』Ⅱ(『文集叢刊』45), 《行狀》; 專心吾道 著自警文 一以聖賢爲準則 敬義挾持 知行並進 不由師承 自得其妙---二十三歲 謁退溪先生于陶山 問主一無適應事接物之要 厥後 往來書札 辯論居敬窮理及庸學輯註聖學十圖等說 退溪多捨舊見而從之

33) 金弘度(76)는 변중록에서 “『退書攷證』에 盧守愼 문인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許筓(143)은 그 동생 허균이 지은 연보에서 퇴계에게 수학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문집총간』의 「荷谷集解題」나 『한국학대백과사전』에 모두 柳希春의 문인으로 밝혀 놓았으며, 실제 定州에 있을 때 유희춘의 외조부 崔溥의 『漂海錄』을 간행하여 특수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李陽元(279)은 사위 成永이 지은 행장에 “학업을 스스로 이루었고, 어려서 李仲虎에게 수학하였다”고 하면서 퇴계에게 급문한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尹斗壽(284)도 崔畹이 지은 신도비에 “일찌기 성수침에게서 大義를 익혔고, 李仲虎에게 질의하였다” 라고 하면서 퇴계에게 급문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에만 몰두하였다고 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權好文(63)이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33세 때 어머니 喪을 마치고는 탄식하면서 ‘뜻을 급히 과 거시험에 응시한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지만 이제 무엇 하러 과거 공부를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이 때부터 靑城에 자리잡고 살면서 後學들을 가르쳤다. 齋郎에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藥圃 栢潭 등 여러분들이 그를 공경해서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지은 閑居錄을 보여주면서 거절의 뜻을 드러내었다”³⁴⁾라고 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예는 날날이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金富弼(36)·金樂春(43)·柳雲龍(82)·卞成振(91)·鄭述(110)·白見龍(147)·黃耆老(237) 등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경기지역 문인 중에는 이렇게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침잠하였다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鄭之雲(1)·成渾(71)·金希禹(156) 등 세 사람에게 대해서만 은둔에 힘쓰거나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정지운과 성혼 두 사람이 문인 시비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학자형 인물이 이 지역에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반면 문과 급제자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전반적으로 관료 지향적이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표4》 문과에 급제한 문인 명단

李湛(2) 李楨(3) 崔應龍(5) 盧守愼(6) 柳希春(11) 許忠吉(13) 黃俊良(14) 朴承任(15) 黃應奎(19) 金德龍(21) 吳健(24) 金克一(27) 孫英濟(28) 朴淳(29) 洪渾(31) 金宇宏(33) 金八元(42) 金德鵬(44) 具思孟(45) 鄭芝衍(47) 具鳳齡(48) 金就礪(49) 鄭琢(50) 奇大升(53) 鄭惟一(64) 權宣(66) 裴三益(68) 權文海(69) 李珥(72) 尹根壽(74) 許曄(75) 金弘度(76) 金命元(76) 金誠一(79) 鄭崑壽(81) 李誠中(83) 權春蘭(85) 金功(86) 金宇顛(87) 吳澐(89) 金復一(94) 柳成龍(98) 禹性傳(101) 宋言愼(102) 金孝元(103) 朴漸(104) 丁胤禧(105) 李敬

34) 『陶山及門諸賢錄』, 권2, 「權好問」; 中司馬 三十三喪母服闋 歎曰 屈志場屋 爲母在也 今安用學業爲也 自是卜居靑城 獎勉後學 除齋郎不赴 藥圃栢潭諸公 雅敬公 欲推轂 公示所著閑居錄以見志

中(108) 曹光益(111) 金梯甲(113) 金晬(115) 李養中(116) 李憲(119) 金澤龍(128) 沈喜壽(130) 邊永清(133) 柳根(136) 洪迪(138) 申湜(141) 許旻(142) 許筠(143) 金泰廷(146) 成洛(148) 高應陟(155) 文命凱(165) 安馨(166) 李光軒(170) 金弼(184) 金啓(188) 崔顥(189) 周博(190) 尹卓然(196) 李純仁(208) 李好敏(210) 金玄度(211) 權洙(217) 李閑道(260) 任肅臣(275) 李陽元(279) 尹斗壽(284) 沈義謙(285) 宋鉉(286) 洪聖民(290) 曹大中(292) 尹噉(293) 俞大脩(296) 朴民獻(297) 徐崐(298) 朴大立(300) 서울41명/전체89명

위의 표는 『도산문집제현록』과 변증록 등을 검토하여 퇴계 문인 중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명단을 조사하여 제시한 것인데, 짙게 표시한 사람들이 모두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이다. 퇴계 문인 310명 중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위와 같이 전체의 약 28% 가량인 89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1명이 모두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역 문인은 그 절대 수에 있어서는 전체 310명의 약 20%(64명)에 불과하였지만, 문과 급제자의 수에 있어서는 전체 89명의 약 46%(41명)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문인의 평균 문과 급제자 비율이 28% 정도였음에 비하여, 서울 경기지역 문인의 문과 급제자 비율은 64명 중 41명 즉 전체의 65%나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호를 받은 사람과 대제학을 지낸 사람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5》 시호, 대제학 관련 문인 명단

시호를 받은 사람(20/38) ; 盧守愼(6) 柳希春(11) 朴淳(29) 金富弼(36) 具思孟(45;文懿) 鄭芝衍(47) 具鳳齡(48) 鄭琢(50) 朴光前(52) 奇大升(53) 成渾(71;文簡) 李珪(72;文成) 尹根壽(74;文貞) 許暉(75;文簡) 金命元(76;忠翼) 金誠一(79) 鄭崑壽(81) 李誠中(83;忠簡) 金玘(86) 金宇顥(87) 洪可臣(93) 柳成龍(98) 禹性傳(101;文康) 宋言愼(102;榮襄) 李敬中(108) 鄭述(110) 曹好益(112) 金梯甲(113;文肅) 金晬(115;昭懿) 沈喜壽(130;文貞) 柳根(136;文靖) 尹卓然(196;憲敏) 李好敏(210) 李陽元(279;文憲) 尹斗壽(284;文靖) 沈義謙(285;忠惠) 洪聖民(290;文貞) 尹噉(293;孝貞)

대제학을 지낸 사람(6/9) ; 朴淳(29) 李珥(72) 尹根壽(74) 柳成龍(98) 沈喜壽(130) 柳根(136) 李好敏(210) 李陽元(279) 洪聖民(290)

위의 <표5>는 『도산급문제현록』과 변증록을 검토하여 시호를 받은 사람과 대제학을 지낸 사람을 따로 검증하여 그 명단을 제시한 것이다.³⁵⁾ 이를 보면 퇴계 문인 중 시호를 받은 사람은 대략 38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 경기지역 문인이 그 절반이 넘는 20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제학을 지낸 9명 가운데서도 朴淳(29)·柳成龍(98)·李好敏(210)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이 모두 서울 경기지역 문인이었다. 그러니까 문인의 절대 수는 전체의 20% 정도였지만 시호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53%, 대제학을 지낸 사람은 전체의 67%를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이 차지하였던 셈이다. 이처럼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들은 그들이 퇴계 문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중에 비하여 문과 급제자나 대제학을 지낸 인물 및 시호를 받은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것은 이 지역 문인들이 전반적으로 관료 지향성이 강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지역 문인들 가운데 학자형 보다 관료문인형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남긴 문집과 저술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지역 문인들 중 현재 문집이나 저술이 파악되는 사람은 약 22명 정도이다. 문집만 있는 사람이 成渾·許曄·李誠中·金孝元 등 10명이고, 저술만 있는 사람이 鄭之雲·李咸亨·禹性傳·趙振 등 4명이며, 문집과 저술이 함께 있는 사람이 洪仁祐·李珥·尹根壽·宋言慎 등 8명이었다. 그 내용을 『도산급문제현록』의 수록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이것은 김종석의 『退溪學의 理解』, 일송미디어, 2001, 196쪽에 제시된 통계를 참고하였는데, 김종석의 연구에는 당초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지 않은 南冥 문인 李山海와 牛栗문인 鄭澈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삭제하였다.

번호	이름	문집	저술	문집내용
001	鄭之雲	불분명	天命圖說	
007	洪仁祐	恥齋遺稿2권	關東日錄	권1:詩8수, 策2, 書13, 行狀2, 권2:日錄
012	李咸亨	불분명	心經釋義 朱子書講錄	
071	成 渾	牛溪集12권	불분명	권1:시, 권2-3:章疏, 권4-5:書, 권6:雜著, 續1:시, 續2:章疏, 續3-5:簡札, 續6:잡저
072	李 珥	栗谷全書38권		권1:辭賦 詩, 권2:詩, 권3-7:疏筭, 권8:啓議 권9-12:書, 권13:應製文字 跋 記 권14:說 箴銘 祭文 雜著, 권15-16:雜著, 권17-18:墓碑銘, 권19-26:聖學輯要, 권27:擊蒙要訣, 권28-30:經筵日記, 권31-32:語錄, 권33-38:附錄:世系 年譜 門人錄 行狀 碑誌 등, 拾遺1:詩 202수, 拾遺2-3:각종 문장, 拾遺4-5:雜著
074	尹根壽	月汀集12권		권1-3:시. 권4:筭子 啓辭 疏, 권5:序 記 書. 권6:墓碑, 권7:祭文 哀詞 朝天錄:중국기행시. 습유:칠언을시. 별집4권2책 중 별집1:朱陸論難 별집2:韓文出釋, 별집3:漫錄, 별집4:皇朝名臣
075	許 晞	草堂集1책	불분명	시12제, 각종 문 15편, 부록
083	李誠中	坡谷遺稿1책	불분명	각종 시:382수, 表2, 碑銘1, 書9
101	禹性傳	불분명	論啓蒙太極圖	喪禮問答, 癸甲錄, 易說, 理氣說
102	宋言愼	壺峯集	聖學指南	내용 미확인
103	金孝元	省庵遺稿2권	불분명	권1:詩 181수, 권2:賦1 기타 각체 문장13편, 부록에 言行錄 景行錄 각1
113	金梯甲	毅齋遺稿2권	불분명	권1:시21 書4 祭文2, 권2:부록:세계 연보 행장 제문 등
117	趙 振	불분명	溪門喪祭問答	
130	沈喜壽	一松集8권	불분명	권1-4:詩, 권5-7:筭議, 권8:祭文 碑誌 遺稿:대부분 시
136	柳 根	西垞集8권	續靑丘風雅	권1-4:시. 권5:敎 表 策 箋 儼文雜著 권6:序 記 跋 書. 권7:碑銘 行狀. 권8:疏筭
138	洪 迪	荷衣遺稿	불분명	내용 미확인
142	許 箴	嶽麓集2권	불분명	권1:각종 시(八音 향림 등), 권2:書 上疏 墓碣 行狀

143 許 箴 荷谷集	荷谷詩抄;각종 시 290수. 雜著補遺;각종 문장, 조천록;중국기행문 기타 儀禮刪注 讀易管見 夷山雜述 지었다 함.
196 尹卓然 重湖集	癸巳日錄
208 李純仁 孤潭逸稿5권	불분명 권1-2;시, 권3;문, 권4;부록(시, 잡저). 권5;가장 행장 등
279 李陽元 鷺渚遺事	불분명
284 尹斗壽 梧陰遺稿	3권 권1-2;시, 권3;문, 기타 箕子志, 延安誌, 平壤誌, 成仁錄 지었다 함

위에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집을 남긴 18명 가운데 成渾(12권)·沈喜壽(8권)·李純仁(5권)·李珥(18권)·尹根壽(12권)·柳根(8권)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문집 규모가 5권 미만으로 대단히 소략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내용도 詩와 記, 跋, 書, 碑誌 등 일상적인 잡문장이 대부분이었다. 洪仁祐의 『恥齋遺稿』는 詩文과 日錄이 각 1권이었고, 許曄의 『草堂集』은 詩文 몇 편을 제외하면 모두 諸家の 글을 수습해 놓은 것이었으며, 李誠中의 『坡谷遺稿』는 문장 3편과 편지 9편을 제외하면 모두 시였다. 金孝元의 『省庵遺稿』와 許箴의 『嶽麓集』도 詩가 대부분이고, 尹斗壽의 『梧陰遺稿』도 詩가 2권 文이 1권이었으며, 『箕子志』, 『延安誌』, 『平壤誌』 등은 地誌類였다. 전체적으로 시와 일상적 문장이 대부분이고 깊은 철학적 사유를 반영한 雜著類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문집이 5권 이상인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尹根壽의 『月汀集』은 전체 12권 중 권1-3, 3권과 『朝天錄』1권, 『拾遺』1권 등이 모두 시였고, 별집1권은 한퇴지 문장의 주석서(韓文吐釋), 또 다른 별집 1권은 ≪月汀漫錄≫이란 시화서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상적 文章이었고, 주자학과 관련된 학적 관심은 『朱陸論難』 1권 정도에 불과하였다. 沈喜壽의 『一松集』은 전체 8권 중 권1-4는 시, 권5-7은 筭議, 권8은 제문과 墓道文字였고, 뒷부분에 첨부된 遺稿도 序文 2편을 제외하면 모두 시였다. 柳根의 『西垞集』 8권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권1-4의 4권이 모두 시

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상적 雜文章이었으며, 병려문에 대한 관심을 집약하여 『儷文雜著』를 편찬하고, 김종직의 『靑丘風雅』 이래 조선 성종 때부터 선조 연간에 이르는 한시를 선집하여 『續靑丘風雅』 7권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가장 주요한 학적 관심이었던 經學과 性理學에 대해서는 불만한 업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퇴계와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불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는 『天命圖說』을 지은 鄭之雲, 『心經釋義』와 『朱子書講錄』을 지은 李咸亨, 雜著와 서간문 속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론을 기술하고 있는 成渾, 『聖學輯要』·『擊蒙要訣』·『經筵日記』 등을 남긴 李珣, 『論啓蒙太極圖』·『喪禮問答』, 《易說》·《理氣說》 등을 지은 禹性傳, 『儀禮刪注』·『讀易管見』·『夷山雜述』 등을 지은 許葑, 기타 『聖學指南』을 지은 宋言愼과 『溪門喪祭問答』을 지은 趙振 정도로 압축되는데, 이 여덟 명 가운데서도 정지운·성흔·이이·허봉 등 절반이 문인 시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강한 관료문인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 後代的 繼承 問題

앞에서 본고는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들이 그 수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지역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대체로 퇴계 이전에 이 일대에서 강학 활동을 해 온 사람과 선배 학자들의 학맥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고, 수적 비중에 비하여 퇴계와의 학문적 친연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학자형 보다 관료문인적 경향성이 농후하였음을 밝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곧 이어 전개된 동서분당과 남북 대립 및 이와 깊이 얽혀 전개된 복잡한 학파

의 분화 관계 속에서 동문으로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상실하고 점차 김성일·유성룡·정구 등 영남지역 남인정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오히려 이들과 심각한 대립각을 형성한 성혼·이이·김장생·김상헌 등 기호지역 우울학맥 중심의 서인 노론계 일원으로 편입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575년(선조8)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銓郎職을 두고 불화가 일어나서 士類들이 크게 동서로 양분될 때 柳成龍·金誠一·鄭述·鄭仁弘·南以恭·金宇顥·崔永慶·郭再祐 등 퇴계와 남명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지역 주요 인물들은 주로 동인의 입장에 있었고, 金繼輝·朴應男·李貴·鄭曄·鄭澈·黃愼 등 李仲虎와 牛溪 栗谷 학맥을 계승한 기호지역 주요 인물들은 서인의 입장에 있었다. 이 때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들 중 許曄·禹性傳·許筭·李誠中 등 일부는 영남지역 문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지만, 成渾·李珣를 비롯하여 沈義謙·尹斗壽·尹根壽·具思孟·朴淳·南彥經 등 이 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대부분의 문인들은 서인 세력의 중심 인물이 되거나 그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동서로 분당된 이후 서인의 입장에 섰던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은 영남지역 문인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師承關係를 구축하면서 이 일대 사류의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예컨대 『도산금문 제현록』에 등재되어 있는 李純仁(208)과 金玄度(210), 금문록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유성룡과 함께 수학한 李軫(1536-1610)과 兪大逸(1572-1640) 등은 모두 다시 우계와 율곡의 문인으로 편입되었다. 尹根壽는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었지만 그 문하에서 金尙憲·趙翼·李廷龜를 배출하고, 김상헌이 다시 宋時烈·宋浚吉·朴世采를, 조익이 다시 서인의 대표적 인물인 兪棨를 배출하면서 기호지역 서인 학맥의 한 구심점으로 고착되었다. 그들의 후예도 마찬가지로, 율곡의 조카 李景震, 윤두수의 아들 尹昉·尹昕·尹暉·尹暄, 尹暉의 손자 尹煌과 그 아우 尹烜, 具思孟의 아들 具崱 등은 모두 牛栗門人이 되었고, 구사맹의 아들 具宏과 손자 具仁후, 윤돈의 증손 尹舜舉·尹文舉·尹宜舉, 洪聖民的 손자 洪命夏 등은 모

두 金長生·金集·金尙憲의 문인이 되었다³⁶⁾.

특히 동서분당의 주역이었던 沈義謙은 그 자신이 퇴계 문인이고, 큰 형 沈仁謙의 아내 具氏도 퇴계 문인 구사맹의 딸이었는데, 이후 작은조카 沈愷은 율곡 문인이 되고, 큰조카 沈엄의 후손 沈若沂는 金集과 宋浚吉 문인이 되어³⁷⁾ 퇴계 문인의 후예가 우울학맥으로 편입되어 가는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金德秀의 손자 金興宇와 白仁傑의 외손 李春英이 우울 문인이 되고, 金滉의 문인이었던 申瑛의 손자 申欽(1560-1628)과 황정옥의 외손 李厚源 등은 김장생의 문인이 되며, 신희의 아들 申翊全(1605-1660)이 김상헌 문인이 된 예 등을 보면 퇴계보다 앞서 서울 경기지역 일대에서 강학 활동을 한 사람들의 후예도 점차 우울 계열의 서인 노론계 학맥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과 그 후예들은 당쟁이 격화되고 학과가 분화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영남지역 주류 학맥을 탈피하여 오히려 이와 치열하게 대립한 서인 노론계 정파의 중심세력 혹은 그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당초 영남지역 퇴계 문인들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동인계열의 許曄·禹性傳·許籟·李誠中과 그 후예들도 建儲議事件과 관련된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두고 남북이 분당될 때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허엽과 그 아들 허봉은 허균이 복인에 가담하였다가 반역죄로 능지처참을 당하면서 온 집안이 거의 멸문을 당하였다. 허엽의 사위 우성전과 전주이씨 종실 이성중은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파직되었고, 두 사람 모두 임진왜란 때 병사한 뒤 그 학통을 계승할 뚜렷한 자손도 제자도 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퇴계의 직전제자를 중심으로 한 서울 경기지역의 학맥은 사실상 광해군 당시의 복인 집권기를 거

36) 여기에서 열거한 인물들의 학맥상의 소속관계는 姜敷錫의 『典故大方』(明文堂, 1982)에 수록된 儒賢淵源圖에 기록된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37) 沈義謙 집안의 계보와 급문사항은 『韓國系行譜』(寶庫社, 1992) 1586-1589쪽에 수록된 靑松沈氏 관련 조항 참고.

치면서 거의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후대 이 지역에서 다시 대두한 근기남인학파는 서울 경기지역 자체의 퇴계학맥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영남지역 주류학맥과 다시 재접목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이한 형국을 보여주게 되었다. 예컨대 근기남인의 대표적 인물인 허목의 경우 증조부 許磁는 김안국 문인이었고, 아버지 許喬는 徐敬德 계열의 朴枝華 문인이었다. 그런데 허목 당대에 와서 비로소 서울 경기지역 퇴계학맥과 전혀 상관없는 영남지역 寒岡學脈과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남인세력의 대표주자로 부상하였다. 윤희도 마찬가지다. 윤희의 증조부 尹子寬은 조광조 문인이었고, 조부 尹虎는 이중호 문인이었으며, 아버지 尹喜孫은 서경덕 문인이면서 당초 小北系列이었던 閔純에게서 수학하였다. 윤희도 처음에는 이런 가학을 계승하였는데, 己亥禮訟 이후에 비로소 허목과 함께 남인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이익은 학통상 맥락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조모 尹氏가 서인의 중심 인물로 입지를 굳힌 윤두수 윤근수의 조카 尹暉의 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역시 선대에는 서인계 학맥 쪽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숙종 때 아버지 李夏鑣이 허목을 두둔하다가 진주목사로 좌천되고, 둘째형 李潛이 서인계 인물들에게 역적으로 몰려 옥사한 뒤, 경기도 광주 침성리에 은거하면서 비로소 영남지역 주류 학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새롭게 남인계의 대표적 학자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울 경기지역의 퇴계 문인은 동서분당을 거치면서 이미 서인계의 중심 인물이나 그 일원으로 변신하였고, 영남지역 주류 문인들과 견해를 같이했던 일부 동인계 문인들조차도 대부분 남북분당과 북인정권기를 거치면서 그 학문적 입지와 전통을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숙종조 이후의 근기남인학파는 서울 경기지역 자체 내의 퇴계 학맥을 계승하지 못하고 영남지역 주류 학맥과 다시 재접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姜敷錫, 『典故大方』, 明文堂, 1982.
- 未詳, 『陶山及門諸賢錄辨訂』.
- 朴能緒, 『韓國系行譜』, 寶庫社, 1992.
- 成渾, 『牛溪集』, 『韓國文集叢刊』43, 민족문화추진회.
- 李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45, 민족문화추진회.
- 李忠鎬, 『陶山及門諸賢錄』, 1914년 간행본.
- 李忠鎬, 『陶山及門諸賢錄』, 1916년 간행본.
- 李忠鎬, 『陶山及門諸賢錄』, 1922년 간행본.
- 河謙鎭, 『東儒學案』, 中和堂, 1962.
- 金光淳, 『註解 退溪先生年譜』,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2.
- 金鍾錫, 『退溪學의 理解』, 일송미디어, 2001.
-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과 京南의 提携」, 『李佑成教授定年紀念論叢』, 1990.
-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투고일 2003. 6.30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A study on the toegye(退溪)'s students and that distinguishing marks in seoul-kyungki area

Hwang, Wee-zoo

This is a study on the Toegye(退溪)'s students who lived in seoul-kyungki area and that general distinguishing marks. in result, I find out some interesting facts. (1) the number of students was less than kyungpook district, but more than all the rest districts, almost occupied 20%(64person) of total students(310person). (2) they generally had an important mutual relation with academic tradition of Sadeфу(士大夫) who former times of Toegye(退溪) actived in environs of seoul-kyungki area. (3) even if it were so, the scholastic compactness with Toegye(退溪) was very relaxed as compared with importance in number. and the student of bureaucratic-literary type were in generally more than the person of scholar type (4) because of like these inclination, passing by the times of king Guanghae(光海), they failed to present a united front, step by step disguised themself as central force or member of West party(西人) against East party(東人) or South party(南人). (5) for this reason, the school of Kenki South party(近畿南人) which was appeared in the times of king Sukzhong(肅宗) not placed on the academic tradition of seoul-kyungki district, but placed on the academic tradition of youngnam district which had been scholastic center of Toegye(退溪)'s school.



school, Toegye(退溪)'s school, Toegye(退溪)'s student, a document of Tosan(陶山)'s pupil, a demonstration of Tosan(陶山)'s pupil, chronological history of Toegye(退溪), a classical scholar in seoul district, bureaucratic man of letters

국문초록

서울 京畿地域의 退溪門人과 그 性格

황 위 주

본고는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의 실상과 그 성격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 경기지역 퇴계 문인들이 그 수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지역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대체로 퇴계 이전에 이 일대에서 강학 활동을 해 온 사립과 선배 학자들의 학맥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고, 수적 비중에 비하여 퇴계와의 학문적 친연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학자형 보다 관료문인적 경향성이 농후하였음을 밝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곧 이어 전개된 당파와 학파의 복잡한 분화 관계 속에서 동문으로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상실하고 점차 기호지역 우울학맥 중심의 서인 노론계의 중심 세력 혹은 그 일원으로 편입되었으며, 광해군 당시의 복인집권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학통이 거의 단절되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출현한 근기남 인학파는 서울 경기지역 자체의 퇴계학맥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영남지역 주류학맥과 다시 재접목되어 나타나는 특이한 형국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學脈, 退溪學脈, 退溪門人, 陶山及門諸賢錄, 陶山及門諸賢錄辨正, 退溪先生年譜, 畿湖士林, 官僚文人, 近畿南人, 東西分黨